

# 태풍 뒤 장맛비...약해진 지반 추가피해 우려

### '다나스' 물폭탄에 농경지 928ha 침수 등 광주·전남 잇단 피해 25일 또 비 소식...물·습기 머금은 급경사지 등 붕괴 대비 시급

광주·전남에서 지난 주말 물폭탄을 뿌린 5호 태풍 '다나스'(DANAS)에 이어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한 장맛비가 예고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속된 비로 인해 산과 계곡, 도로 등이 다량의 물기를 흡수한 상태인 만큼 이번 주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침수, 낙석, 지반 침하 등의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와 각 자치단체들은 태풍을 대비해 수영 경기장 시설 점검과 붕괴·침수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지난 19일

부터 21일까지 광주·전남에는 광양 백운산 394.5mm를 최고로 여수시 거문도 385.5mm, 지리산 피아골 304mm, 보성 276.5mm, 고흥 275.1mm, 순천 251.5mm, 여수 232.9mm, 광양 219.5mm, 완도 206.4mm, 광주 53.6mm 등의 비가 쏟아졌다. 피해도 잇따랐다. 여수·강진·해남·고흥 지역 농경지 928ha가 침수됐고, 완도를 주택침수 1건, 도로 토사유출 6건,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31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밤 완도항에서는 선박 고정작업을 하던 어민이 기계에 다리를 깔리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기상청이 22-24일까지 폭염

뒤 25일부터 또다시 비를 예보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 다나스가 물고 수 많은 수증기와 폭염에 따른 수증기가 결합할 경우 지역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부터 31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인 25일 장마전선이 북상해 비가 내릴 예정이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물고 오는 많은 수증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시간당 80mm 이상이 내리는 비)가 쏟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난·재해 전문가들은 장마철 계속된 호우로 대지에 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다량의 빗물이 추가로 유입될 경우 급경사지 등의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광

주·전남의 산이나 계곡, 도로들이 계속된 장맛비와 함께 이번 태풍 '다나스'로 물과 습기를 다량으로 머금으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면서 "태풍이 소멸되긴 했지만, 추가 비소식이 예고된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급경사지나 취약도로 등을 추가 점검해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남구·광산구 각 28곳 등 전체 99곳에 달한다. 폐막을 앞두고 있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단근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보도지원팀장은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 등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쓰레기더미서 나온 4265만원 주인은?

### 광주 폐기물업체서 현금 발견 경찰, 주인 찾기 조사 나서

지난 19일 낮 12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월출동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4000여만 원의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수거한 폐기물을 파쇄하기 위해 폐기물 상자를 집계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5만원 권 지폐가 쏟아져 내려 이 폐기물업체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5만원 권 지폐 853장, 총 4265만 원을 수거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문흥·두암·임동 등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온 것으로 확인하고 유실 물품에 따라 이 돈을 은행에 6개월간 보관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LOST 112)에 게시하고, 주인을 찾기 위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 주인이 나타나면 전체 금액의 20%를 폐기물 업체 주인에게 사례금으로 주고, 나머지 금액을 원주인이 찾아가게 된다. 하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세금 20%를 떼 나머지 금액을 신고한 폐기물 업체 주인이 갖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지리산 폭우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던 피서객 8명 구조

21일 오전 7시 50분께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인근 계곡에서 고립된 김모(59)씨 등 피서객 8명이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40분 만에 구조됐다. 김씨 등은 전날 인근 펜션에 휴가를 왔다가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했다.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는 계곡 하류로 김씨 등을 이동하게 한 뒤 5m 높이 수문교에 사다리를 연결, 이들을 구조했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구례 지리산에는 20~21일 이틀간 26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인도 돌진 차량에 3명 사상 '날벼락' 21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삼거리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그 자리에 서 있던 배모(여·77)씨를 친 뒤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배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운전자 정모(47)씨와 탑승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신안 8살·6살 자매 물놀이하다 숨져

21일 오후 3시께 신안군 압해읍의 한 물웅덩이에서 이모(8)양과 여동생(6)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마을 주민은 이양이 수면에 떠있는 채 움직이지 않자 근처에 있던 보호자에게 알린 뒤 함께 아이들을 구조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양 자매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물웅덩이는 가로 11m·세로 5m·깊이 1.6m 규모로, 이양의 집과는 100여 m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이날 비가 그친 뒤 이양 등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kwangju.co.kr

## 화순군산림조합 청탁 비리 연루 업자 3명 집행유예

화순군청 관공사를 수수해주거나, 산림조합 인사 청탁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업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B(51)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C(58)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고 두 달 넘게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했던 A씨는 화순군 관공사를 수수해주겠다며 지난해 9~12월 화순군산림조합 관계자에게 3차례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업자인 B씨도 관공사 수수알선 대가로 조합 관계자에게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청탁해 각각 4건, 10건의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인 C씨는 화순군산림조합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임원으로 승진하게 해주겠다며 지난해 6월 조합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 이들 외에도 화순군산림조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은 뇌물을 전달하거나 받은 화순군 공무원 2명과 화순군산림조합장 등 6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친딸·의붓딸·처제 성추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어린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잇달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2008년 재혼한 직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에게도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는 등

2015년까지 두 딸을 추행하거나 학대했다. 김씨는 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등으로 부인도 수차례 폭행했으며,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처제도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위한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큰 수치심을 줬다"며 "재혼 전에도 자신의 친딸들을 강간, 추행해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피해자들도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어린이 추행 50대 징역 7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0세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

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5년간 개인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전남의 한 종합병원 면회실에서 B(10)양을 끌 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강지환 성폭행 피해자 측, 악성 댓글 누리꾼 30여명 고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측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발. ○21일 이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피해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3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

○박 변호사는 "고발 대상은 장기간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반복한 경우, 1회에 그쳤더라도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사례 등이다"면서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강씨가 지난 9월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이후 피해자들이 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 등을 들어 강씨에 대한 피해자들의 무고를 의심하는 글을 올리는 등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